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황혜진**

〈차례〉

1. 서론
2. 조사연구 작업과 베트남 제보자 소개
3. 베트남 설화 자료의 현황과 개략적 소개
4. 베트남 설화 자료의 주요 내용과 성격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주민설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설화 제보자의 수는 22명에 달한다.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들은 자국의 설화와 이야기문화의 전통으로 한국의 이야기문화를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확보된 베트남 설화에 대한 자료 중 많은 편수를 보유한 작품은 <의붓자매 땀과 껌>(8편), <쩌우까우 유래>(7편), <형제와 별나무>(7편), <아기장수>(6편) 등이다. 1편만이 제보된 경우도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의 특성을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신화 자료는 『영남척괴열전』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 이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 연구지원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 설화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2016-A413-0022)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다. 시조신 신화는 여전히 베트남인의 자부심의 원천이자 사회 통합의 상징적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전쟁을 끝내고 생업이 편안해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영웅과 농사영웅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다. 낙용군, 못 할아버지와 같은 신화적 상상은 전설과 민담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전설 자료에는 베트남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고대와 중세에 이어 베트남 독립운동,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은 전설을 통해 패배의 기억을 간직하는 한편, 승리를 거둔 영웅의 행적을 칭송하였다. 전설이 교과서가 되고 전설 속 장소가 역사의 현장이 되었기에 베트남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외세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전설 자료에는 유래담도 많았는데, 이러한 유래담은 베트남인의 생활문화나 환경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내준다.

베트남 민담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베트남인들이 오랜 시간 공유했던 관계의 윤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형제관계의 갈등과 해법을 다룬 민담의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형제 사이 갈등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식관계에서는 부모를 보살피는 효(孝)가 중시되기는 하지만 위해(危害)를 가하는 부모에 저항·반격하거나 무력한 부모를 대신해 똑똑한 아이가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는 신의의 윤리가 강조되었다.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이주민에 의해 구술된 베트남 설화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주는 효용이 있다. 또한, 베트남 설화를 비롯한 다문화 설화는 문화적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게 하며 타자와 더불어 새로운 이야기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문식성 교육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이주민 구술 설화, 다문화 설화, 베트남 설화, 베트남 신화, 베트남 전설, 베트남 민담, 다문화교육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인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구축’(이하 ‘이주민설화조사’)을 기초로 한다. 조사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17명(연구책임자 신동훈 교수)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은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며, 조사연구의 내용은 이들이 한국어로 구술하는 모국의 구술담화자료를 녹음·채록하고, 편집·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3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 28개국에서 결혼, 유학, 노동 등의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134명의 제보자로부터 천여 편의 설화를 포함하는 전체 1,493편의 구술담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의 출신국은 아시아가 주류를 이루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21개국에 달한다. 제보자가 많은 순으로 제보자의 출신국을 나열하고, 자료의 편수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 지역: ①중국(24인, 253편) ②베트남(23인, 156편) ③일본(13인, 199편) ④몽골(11명, 123편) ⑤카자흐스탄(9인, 152편) ⑥캄보디아(8인, 84편) ⑦필리핀(8인, 57편) ⑧태국(4인, 74편) ⑨인도(3인, 79편) ⑩우즈베키스탄(3인, 22편) ⑪인도네시아(3인, 14편) ⑫사우디아라비아(3인, 14편) ⑬네팔(2명, 55편) ⑭미얀마(2인, 30편) ⑮아제르바이잔(2인, 19편) ⑯홍콩(1인, 26편) ⑰키르기스스탄(1인, 14편) ⑱대만(1인, 14편) ⑲타지키스탄(1인, 11편) ⑳터키(1명, 10편) ㉑에스토니아(1인, 7편)

● 아시아 외 지역: ①러시아(4인, 31편) ②도미니카공화국(2인, 7편) ③칠레(1인, 15편) ④브라질(1인, 13편) ⑤파라과이(1인, 8편) ⑥스웨덴(1인, 7편) ⑦에스토니아(1인, 6편)

수집된 자료 가운데, 총 23명의 이주민 제보자가 구술한 156편의 베트남

남 자료가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집대성된 자료에는 설화, 생애담 등을 포함하여 속담, 속신어, 민요, 수수께끼, 문화설명 등 다양한 구술담화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설화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정리하고, 신화, 전설, 민담의 큰 틀로 나누어 각 갈래에 속한 설화 자료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년간에 걸친 조사 연구로 제보자로부터 설화를 채록하는 작업은 일단락된 상태이나 국가, 갈래, 핵심화소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범주화하고 이로부터 자료의 성격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연구는 베트남 설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별 설화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편, 연구팀은 이주민설화조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제보자를 찾고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사하고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이어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확보된 이주민 구술 설화의 가치에 대한 연구,¹⁾ 둘째, 이 자료들이 활용될 영역에서 기여할 바에 대한 연구,²⁾ 셋째, 이주민 설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³⁾ 등이다.

이 연구는 3년간의 조사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획된 것으로 그

1)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박현숙,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주민 대상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2)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 문학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 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3) 김영순,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간 조사연구로 집대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특히 특정 국가로 범주화하여 이주민 구술설화의 성격을 밝히려는 이 연구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시사점을 주거나 적어도 반면교사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국가 단위의 설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개별 설화(군)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2. 조사연구 작업과 베트남 제보자 소개

베트남 설화 채록을 위해 평균적으로 2~3명이 한 조를 이룬 세 개의 조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5차례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3명의 제보자로부터 모두 156편의 구술담화 자료를 채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료는 조사일자와 조사지역, 출신 국가와 이주 목적, 제보자의 성별과 나이, 구술담화의 유형, 제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목록화되었으며, 녹음된 청각 자료, 촬영된 시청각 자료, 전사된 문서 자료의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이 중 문서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파일명】 20161112_033_001_베트남_01_누구엔티미두이엔_F_모자
바뀌 쓰고 살아난 일곱 형제

【제목】 모자 바뀌 쓰고 살아난 일곱 형제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6. 11. 12(토) 오후

조사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제 보 자 : 누구엔티미두이엔(원지영) [베트남, 여, 1989년생, 결혼이주 6년차]

청 중 : 조사자 포함 5인

조 사 자 : 박현숙, 김현희, 김민수

【구연상황】

제보자가 퇴근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주선자가 제공한 조사 장소로 왔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한 뒤 간략하게 제보자의 인적 사항 조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제보자가 준비해 온 이야기 구연을 시작하였다. 오숙민 작가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우쿠자노 바디나 제보자가 이야기판에 청자로 참여하였다. 제보자가 구연을 마친 뒤 오숙민 작가와 이야기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사자가 이야기를 알게 된 경로를 묻자 어릴 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였다. 이야기는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었다고 하였다.

【줄거리】

옛날에 한 아버지가 가난하여 일곱 아들을 내다 버렸다. 막내가 계획을 미리 알고 가는 길에 조약돌을 떨어뜨려 형들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두 번째 아이들을 버리러 가는 길에 막내가 빵 조각을 떨어뜨렸는데, 새가 다 먹어 버려 일곱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일곱 형제가 한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게 되었는데, 그 집에도 일곱 자식이 있었다. 주인아저씨가 일곱 형제를 잡아먹기 위해 헛갈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일곱 아들 머리에 모자를 씌워 두었다. 막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집 주인 일곱 아들에게 씌워 둔 모자를 벗겨 일곱 형제가 써서 살아났다. 주인아저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일곱 형제를 쫓아 왔고, 막내가 빨간 지팡이를 구해 와 주인아저씨를 죽였다. 일곱 형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았다.

【주제어】

일곱 형제, 버림, 돌, 빵, 길 찾기, 식인, 마법 지팡이, 막내, 누구엔티 미두이엔, 원지영, 베트남, 강원도, 황성군

【본문】

옛날에 그 한 집에 그 일곱 형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난 해가지고 자식을 못 키울 것 같아서 그 멀리 데려가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밤에 부부 이야기할 때 제일 막내애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형아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아버지가 그 산에 같이 가가지고 나무 좀 찾으러 가자고, [조사자: 나무 주우러 가자고?] 네, 네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막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멩이 조그만 거 잘 주워 모아가고 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하 생략)

<표1: 이주민 구술담화의 문서 자료 제시 형태>

제보한 설화가 많은 순으로 22명⁴⁾의 제보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⁵⁾과 성별, 출생년도, 이주 목적과 한국 거주 기간, 제보한 구술담화 중 설화 편수의 순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수집된 설화는 총 132편으로, 전체 자료 156편 중 84% 정도에 해당한다. 설화 이외의 생애담과 속담, 속신어, 문화설명, 민요 등은 편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설화를 이해하는 데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① 도티탄(이정민), 여, 89년생, 결혼이주 8년차, 경기도 안양시, 19편

4) 베트남 출신 제보자의 수는 전체 23명이나 1명(이유나)의 경우 구술한 담화 중 설화가 없어 제외하였다.

5) 원래의 이름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병기했다.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들과 달리,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 다수가 따로 한국명을 쓴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② 용티탄프엉, 여, 88년생, 유학 3년차, 인천시 인하대학교, 14편(공동 4편)
- ③ 찐티빅프엉, 여, 77년생, 유학 10년차, 서울시 서울대학교, 13편
- ④ 누구엔티미두이엔(원지영), 여, 89년생, 결혼이주 6년차, 강원도 횡성군, 8편
- ⑤ 팜티루엔(김민주), 여, 87년생, 결혼이주 10년차, 충청북도 청주시, 9편
- ⑥ 저우티탄응, 여, 85년생, 결혼이주 9년차, 강원도 강릉시, 8편
- ⑦ 누엔티김퍼, 여, 90생, 결혼이주 7년차, 충청북도 진천군, 7편
- ⑧ 웬태휴, 여, 87년생, 결혼이주 12년차, 충청북도 진천군, 7편
- ⑨ 팜하뷔, 여, 93년생, 유학 1년차, 서울시 건국대학교, 6편
- ⑩ 부티프엉, 여, 90년생, 결혼이주 7년차, 경상북도 경산시, 5편
- ⑪ 엔티터번(이연아), 여, 84년생, 결혼이주 11년차, 전라남도 진도군, 4편(공동 1편)
- ⑫ 부티김하(김하연), 여, 93년생, 결혼이주 6년차, 서울시 용산구, 4편
- ⑬ 호티흥녀(한수아), 여, 86년생, 결혼이주 11년차, 전라남도 진도군, 4편(공동 1편)
- ⑭ 백옥장, 여, 82년생, 유학 10년차, 4편(공동 4편)
- ⑮ 명티름(이지우), 여, 83년생, 결혼이주 9년차, 충청북도 청주시, 3편
- ⑯ 응웬후우통, 남, 86년생, 노동이주 7년차, 경기도 의정부시, 3편
- ⑰ 호민두, 남, 97년생, 유학 1년차, 강원도 경동대학교, 3편
- ⑱ 찐티배트, 여, 85년생, 결혼이주 4년차, 경상남도 진주시, 2편
- ⑲ 원항하이이엔, 여, 97년생, 유학 1년차, 강원도 경동대학교, 1편
- ⑳ 전티흐엉, 여, 92년생, 결혼이주 6년차, 경기도 안산시, 2편
- ㉑ 찐티아이수언, 여, 88년생, 결혼이주 7년차, 경기도 가평군, 1편
- ㉒ 누엔티한, 여, 91년생, 결혼이주 7년차, 충청북도 청주시, 1편

22명의 제보자 중 결혼이주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도 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출생년도의 분포를 보면, 40대 초반인 77년생 1명을 제외하면 81년~90년생이 19명, 91년 이후 출생자가 7명이어서 20~30대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조사 당시(2016년) 10대(97년생)도 2명이었다. 한국에 거주한 햇수는 평균 약 7년으로, 한국에 온 지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유학생 3명을 제외하면 8년 가까이 된 다.

조사연구가 주로 제보자의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조사 장소와 거주 지역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었다. 제보자별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 경기(4), 인천(1), 강원(3), 충북(5), 경북(1), 경남(1), 전남(2) 등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베트남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일관된 조사 정리를 못했다는 점이다.⁶⁾

한편, 한국어 표현 능력과 한국 거주 기간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베트남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다고 해서 베트남 설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어떤 언어문화에서 성장하였으며 현재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이들이 베트남 설화에 대해 가진 관심은 어느 정도이며, 베트남 설화를 조사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한국어로 전하는 베트남 설화의 양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설화를 제보한 도티탄은 베트남에서 대학에 갈 꿈은 접었지

6) 베트남의 경우, 남북으로 긴 지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남과 북의 역사와 문화, 식생마저 다르다. 북쪽은 중국과 맞닿아 있어 중국문화의 영향이 크며, 대나무가 대표적인 식생이다. 한편, 남쪽은 나중에 베트남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캄보디아 왕조의 유적이 남아있기도 하며, 대나무보다는 야자나무가 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백옥장: 베트남 너무 넓거든요. 넓고 길어요. 근데 북쪽에만 대나무 있는 거예요. 남쪽은 대표하느 나무가 야자에요, 야자. 코코넛. (...) 윙티탄프영: 베트남의 전통문화도 북쪽 위주로 하고 있죠. 나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확대, 자기 영토를 확대하면서 지금 베트남 전체가 되는 거죠. 옛날, 그니까 원래 베트남의 본토는 북쪽 중심이었어요. (...)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기만 했던 이미지를 국가에서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다른 더 작은 나라의 땅을 침략한 그런 얘기는 절대 없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역사를 다시 알아보니 야, 캄보디아 땅도 많이 뺐구나[빼앗았구나], (웃음)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참파 문화가 있었는데 (...) 베트남 중부에 가면 참파 왕국, 막 흔적들이 막 남아있어요.”(윙티탄 프영, 백옥장, 「나라 구하고 승천한 거인 영웅 땀집」, 오정미, 한상효, 엄희수 조사, 2017. 11. 02) 이에 따라 남북의 설화 자료 분포도 다르며, 같은 계열의 설화라도 지역에 따른 변이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다소간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만 한국에서 꼭 꿈을 이루리라 맘먹을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으며, 얼굴도 모르던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오니 집에 시누이가 넷이나 되어 한국말을 연습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⁷⁾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설화를 얘기해 준 융티탄프엉과 쩌티빅프엉은 자국에 돌아가 교수를 할 것이란 계획으로 한국에서 박사논문 준비 중이었는데 둘은 학문적 관심에 더해 베트남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한 다수 설화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도티탄을 비롯한 제보자들을 구술문화 세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옛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하며,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설화를 듣기 위해 고향의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친정에 다녀와서, 혹은 마침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친정 부모님들께 물어서 재구술할 정도로 구술문화의 전통에 익숙하거나 구술문화적 사유 방식과 표현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공감과 관심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며 반응하는 조사자들의 성의 있는 태도에 힘입어⁸⁾ 열성적으로 베트남의 설화를 구술해 주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조사자들의 관심에 맞추어 더 많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기도 했는데, 조사의 간격은 제보자들의 기억 저편의 설화를 끄집어내어 설화적 논리를 재구성하는 시간이자 다소 멀어졌던 구술문화의 전통과 접속하기 위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조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1930년~1940년대 출생한 세대가 노년층의 주류가 되면서 설화문화는 결정적인 해체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경험적, 현실적, 논리적 담화와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 세대의 영향이 이후 세대로 이어져 20세기 후반 주류적인 한국어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한다.⁹⁾ 이에 비

7) 도티탄, 「결혼하게 된 사연과 정착 과정」, 오정미, 김민수 조사, 2018. 12. 13.

8) 조사자 역할을 했던 오정미 박사는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느꼈고, 이것은 다시 그 설화를 창조한 국가에 대한 관심의 함양과 존중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였다. (오정미, 앞의 글, 200면.) 이러한 태도가 제보자의 의욕을 더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해, 구술문화 전통과 친숙하며, 자국 설화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어문화를 전향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봄직하다.¹⁰⁾

3. 베트남 설화 자료의 현황과 개략적 소개

이 장에서는 수집된 설화 자료의 현황을 정리하고 설화 자료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설화 제시의 순서는 가장 많이 채록된 것에서 적게 채록된 것으로 삼았으며, 자료를 찾는 편의를 위해 제보자를 제시하였다. 또, 현재 수집된 자료의 제목을 그대로 따르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같은 이야기 계열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다수가 제목으로 삼거나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계열’ 칸에 제안하였다.

설화를 설명할 때는 계열로 묶인 설화군의 공통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설화의 성격을 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화’, 다수의 유래담을 포함하는 ‘전설’, 환상적, 현실적, 희극적으로 분류되는¹¹⁾ ‘민담’ 등으로 나누도록 하겠다.¹²⁾ 그리고 한국의 설화나 널리 알려진 서사물과

9)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학회, 2003.

10)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앞의 글, 289면.

11) 이 연구에서 민담의 분류는 신동훈(「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 연구」,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31-33면.)을 따랐다.

12) 베트남에서는 설화를 신화, 전설, 고적(古跡)으로 나눈다. 이러한 구분은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는 한국의 분류와 유사하다. 고적은 ‘신기하고 기이한 요소가 있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정의되며, 최근에 출판된 『베트남 민간문학 유형 사전』에서는 고적을 1)동물담, 2)신이담, 3)생활담으로 분류하였다.(옹우옌티 후에, 『베트남 민간문학 유형 사전』, NXB Lao động, 2012, 16-23면, 이현정, 「베트남 설화 <토아йка인과 찌우뚜언>과 소설 <토아йка인과 찌우뚜언>의 비교」, 『베트남연구』 16, 한국베트남학회, 2018, 106면에서 재인용.) 한편, 최귀목은 신화, 전설, 고적이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에 정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베트남의 전설은 주로 인물전설을 주로 가리키며, 고적은 전설과 민담에 걸쳐있기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전체 내용이나 일부분이 유사한 설화를 소개하겠다. 두 편 이상이 있는 자료에 이어, 다른 양식의 표로써 한 편만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 제목 | 제보자 | 계열 | 편수 | 분류 | 설명 |
|-------------------------|---------------|-------------|----|----|--------------------------------------------------------------------------|
| 의붓자매 땀과 감 | 누엔티김피 | '제목'과 동일 | 8편 | 민담 | 못된 의붓자매로 인해 착한 딸이 고난을 당하고 복수하는 환상적 민담, 한국의 <콩쥐팍쥐>와 유사함. |
| | 응티탄프엉, 백옥장 | | | | |
| | 팜티루엔 | | | | |
| | 찐티베트 | | | | |
| | 저우티탄응 | | | | |
| | 찐티빅프엉 | | | | |
| | 호민두 | | | | |
| 쩌우까우 유래 | 부티프엉 | 쩌우까우 유래 | 7편 | 전설 | 형제 갈등으로 인해 형, 형수, 동생이 죽어 환생하는 환상적 민담, 쩌우까우를 혼인 예물로 삼는 풍속 유래담 |
| | 누구엔티미두 이엔 | | | | |
| | 엔티터번 | | | | |
| | 찐티아이쑤언 | | | | |
| | 찐티베트 | | | | |
| | 호티홍녀 | | | | |
| | 팜티루엔 | | | | |
| 빈랑나무 유래 | 원항하이이엔 | | | | |
| | 찐티빅프엉 | | | | |
| 형제와 별나무 | 누엔티김피 | '제목'과 동일 | 7편 | 민담 | 욕심 많은 형이 순박한 동생을 따라하다가 망하는 환상적 민담 |
| | 응티탄프엉 | | | | |
| | 팜티루엔 | | | | |
| | 도티탄 | | | | |
| | 팜하뵈 | | | | |
| | 전티호엉 | | | | |
| | 부티호엉 | | | | |
| 나라를 위한 아기장수 용이 | 응웬후우통 | 아기장수 | 6편 | 신화 | 아기장수가 나라를 구하고 승천하는 신화, 한국의 <아기장수>와 달리 아기장수가 성공을 |

때문이다.(최귀목,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2010, 69~70면.)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분류법에 따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또한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분류된 이주민 설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소 조정하였음을 밝힌다.

| | | | | | |
|-------------------------------------|--------------------------------------|-------------------------------------|----|----|------------------------------------------------------------------------------------------------|
| 나라 구하고 승전한 영웅 땀 | 팜티루엔 웅티탄프엉 백옥장 찐티빅프엉 도티탄 | | | | 거둬. |
| 나라 구하고 승전한 거인 영웅 | 저우티탄웅 | | | | |
| 탄동장수 | 부티프엉 | | | | |
|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퉁편과 어우꺼 | 팜티루엔 웅티탄프엉 웬태휴 도티탄 |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퉁편과 어우꺼 | 5편 | 신화 | 베트남 민족의 형성과 국가의 성립에 대한 건국신화 |
| 용과 불사조의 자손 | 호민두 | | | | |
| 개구리 아들 | 누구엔티미두 이엔 | | | | |
| 두꺼비 청년 | 도티탄 | | | | |
| 코코넛 아이 | 저우티탄웅 | 이물교혼 | 5편 | 민담 | 징그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가 혼인 후 멋진 남성으로 변신하고 부부가 시련을 극복하는 환상적 민담. 한국의 <구렁덩당신선비>와 유사함. |
| 해골 물과 코코넛 아이 | 누엔티한 부티프엉 | | | | |
| 해골야자 | 도티탄 | | | | |
| 괴물 퇴치하고 공주와 결혼한 닷산 | 누엔티김피 웅티탄프엉 저우티탄웅 도티탄 | 괴물 퇴치하고 공주와 결혼한 닷산 | 5편 | 민담 |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괴물퇴치담, 한국의 <지하국대적퇴치담>과 유사함. |
| 괴물을 이긴 남자 | 도티탄 | | | | |
| 선녀와 나무꾼 | 땡티름 | | | | |
| 선녀 아죽과 나무꾼 장유 (1) | 찐티빅프엉 | 선녀와 나무꾼 | 4편 | 민담 | 선녀와 나무꾼이 혼인하였으나 선녀가 떠나버린다는 환상적 민담,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유사함. |
| 선녀 아죽과 나무꾼 장유(2) | 찐티빅프엉 | | | | |

| | | | | | |
|------------------------------|---------------|------------------------------|----|----|---------------------------------------------------------------------------|
| 선녀 아죽과 나무꾼 장유(3) | 편티빅프엉 | | | | |
| 달 속으로 간 꾸이 | 누구엔티미두 이엔 | 달 속으로 간 꾸이 | 4편 | 민담 | 금기를 어긴 부인 때문에 꾸이가 나무와 함께 달로 올라갔다는 환상적·희극적 민담 |
| 보름달 | 팜티루엔 | | | | |
| 나무 아래 앉은 아이 | 도티탄 | | | | |
| 달 속의 사람(재구 술) | 도티탄 | | | | |
| 백 마디 대나무 | 웅티탄프엉 | 백 마디 대나무 | 4편 | 민담 | 3년간 일해도 사위 삼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주를 혼내주어 소원을 이루는 환상적·희극적 민담 |
| | 웬태후 | | | | |
| | 부티프엉 | | | | |
| 대나무 백 마디 | 도티탄 | | | | |
| 환검 호수 | 편티빅프엉 | ‘제목’과 동일 | 3편 | 전설 | 평화의 시기가 오자 신으로부터 받은 검을 돌려주었던 레이에 대한 역사인물전설이자 장소에 대한 지명 유래담 |
| | 팜하뷔 | | | | |
| | 전티호엉 | | | | |
| 하늘과 땅을 닮은 떡 반쪽과 반자이 | 팜티루엔 | 하늘과 땅을 닮은 떡 반쪽과 반자이 | 3편 | 전설 | 쌀로 반쪽과 반자이를 만들어 왕위를 잇게 된 료우 왕자와 관련된 역사인물전설이자 음식 유래담 |
| 설날에 먹는 떡 반쪽자이 | 호민두 | | | | |
| | 웅티탄프엉 | | | | |
| 두꺼비가 이를 갈면 비가 오는 이유 | 호티홍녀 | ‘제목’과 동일 | 3편 | 전설 | 두꺼비가 이를 갈면 비가 온다는 자연현상 유래담 |
| | 웅웬후우통 | | | | |
| | 웅티탄프엉, 백옥장 | | | | |
| 똑똑한 소녀 1 | 누엔티김퍼 | 똑똑한 아이 | 3편 | 민담 | 어린 아이가 지혜로 부모를 돕고 나라를 구한다는 희극적 민담 |
| 똑똑한 소녀 2 | 누엔티김퍼 | | | | |
| 똑똑한 아이 | 도티탄 | | | | |
| 남섬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 | 도티탄 | ‘제목’과 동일 | 2편 | 전설 | 오해로 인해 정숙한 아내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현실적 민담 |
| | 팜하뷔 | | | | |
| 어머니 구제한 | 호티홍녀 | 어머니를 구한 효행 | 2편 | 전설 | 지옥에서 부모를 구해낸다는 효자, |

| | | | | | |
|-----------------------------|---------------------|-----------------------------|----|----|-------------------------------------------------------------------------------------------------------|
| 효녀 올란 | | | | | |
| 어머니를 구원한 아들의 효심 | 누구엔티미두 이엔 | | | | 효녀가 저승에서 부모를 만난 날을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는 명절 유래담 |
| 금구덩이 은구덩이 | 웬태휴 | 금구덩이 은구덩이 | 2편 | 민담 | 욕심 많은 형이 동생을 따라 하다 망하는 모방담 |
| 금상자 은상자 | 부티킴하 | | | | |
| 새가 된 할머니 | 도티탄 부티킴하 | '제목'과 동일 | 2편 | 민담 | 새가 된 할머니를 황금 연꽃으로 살린 손자에 대한 환상적 민담 |
| 속에 있는 물을 버리려 가겠습니다 | 쩐티빅프엉 | 속에 있는 물을 버리려 가겠습니다 | 2편 | 민담 |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며느리에 대한 희극적 민담 |
| 속에 있는 방귀를 뀌겠습니다 | 쩐티빅프엉 | | | | |
| 대나무 속 작은 여인 | 누구엔티미두 이엔 웬태휴 | '제목'과 동일 | 2편 | 민담 | 대나무 한 마디에 살 정도로 작게 태어나 버려진 아이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되는 환상적 민담 |
| 신기한 물병 | 웬태휴 쩐티빅프엉 | '제목'과 동일 | 2편 | 민담 | 신기한 물병으로 예쁜 아내를 얻게 된 남자가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고 왕이 되는 환상적 민담, 중간 부분부터 한국의 <왕이 된 새샘이>와 유사함. |

<표2: 여러 편이 제보된 베트남 설화에 대한 소개>

| 제목 | 제보자 | 분류 | 설명 |
|------------------|---------------|----|-----------------------------------------------------------------------------------------|
| 산신과 수신 | 윙티탄프엉, 백옥장 | 신화 | 왕의 사위 자리를 놓고 산신과 수신이 벌이는 경쟁에서 산신이 승리해 바다가 종종 화를 낸다는 신화이자 자연현상 유래담 |
| 물배추여신 | 윙티탄프엉 | 신화 | 물배추를 심어 벼농사를 잘 짓게 되었다는 식물 유래담 |
| 미주 공주와 중수이 왕자 | 쩐티빅프엉 | 전설 | 적국에서 온 남편에게 속아 나라의 보물을 넘겨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미주 공주에 대한 역사인물전설, 한국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와 유사함. |
| 검은 할머니 | 엔티터번 | 전설 | 적군을 피해 자살한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

| | | | |
|-----------------------------------|--------------|----|------------------------------------------------------------------------------|
| 산 누이바네 | | | 산이름을 붙였다는 지명 유래담. |
| 민병대를 조직하여 프랑스에 맞선 응우옌쑹적 | 저우티탄응 | 전설 | 베트남 독립운동 때 사형장에서도 프랑스군에 항거한 응우옌쑹적의 영웅담 |
| 전쟁귀신 | 팜티루엔 | 전설 | 미군 병커에서 강간당해 죽은 귀신이 근처를 지나가는 남성에게 해코지한다는 괴담 |
| 분신으로 적군의 무기고 폭파한 소년 영웅 | 저우티탄응 | 전설 | 베트남전쟁 때 분신으로 미군 기지를 폭파시킨 소년의 영웅담 |
| 수박 유래 | 땡티름 | 전설 | 사위를 못마땅해 하던 왕이 수박을 만든 사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현실적 민담 |
| 옥수수 유래 | 응티탄프엉 | 전설 | 베트남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된 식물 유래담 |
| 엄마 젖의 맛이 나는 과일 까이 부 스아 | 도티탄 | 전설 | 돌아온 탕아가 젖 맛이 나는 열매를 먹고 퍼뜨렸다는 과일 유래담 |
| 바다 괴물 물리치고 바위가 된 아버지와 아들 | 저우티탄응 | 전설 | 자신을 희생해 괴물을 죽인 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죽은 아들이 바위로 남았다는 지명 유래담 |
| 바위가 된 여인 | 누구엔티미 두이엔 | 전설 | 어릴 때 헤어졌던 남매가 만나 혼인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남매혼 전설 |
| 훌륭한 선생님 쭌반안 | 쨌티빅프엉 | 전설 | 용이 아들이 비를 내리게 하여 죽자 쭌반안이 이들의 버루를 던져 호수로 만들었다는 지명 유래담, 한국의 <보양이목>과 유사함. |
| 바베 호수 | 쨌티빅프엉 | 전설 | 마을이 물에 잠겨 호수가 된 이유와 관련된 지명 유래담, 한국의 <장자못 설화>와 유사함. |
| 꾸우정 섬의 절 | 누구엔티미 두이엔 | 전설 | 고래뼈를 묻은 꾸우정 섬 사찰의 기원담 |
| 백주년 학교 괴담 | 팜하뷔 | 전설 | 과로로 죽은 학생회장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 |
| 물귀신 나오는 서호 | 팜하뷔 | 전설 | 서호에 물귀신이 나온다는 괴담 |
| 강가에 사는 귀신의 신부 | 엔티터번 | 전설 | 귀신 신부가 되기에 강의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풍속 유래담 |
| 소라게 유래 | 팜티루엔 | 전설 | 동물들의 보은으로 얻은 옥을 빼앗기자 이를 찾으러 바다에 길을 낸다며 모래를 뿜는 소라게가 되었다는 동물 유래담 |
| 쥐가 열두 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 | 호티홍녀 엔티터번 | 전설 | 십이지신의 순서 유래담 |
| 우물 안 개구리 | 팜하뷔 | 전설 | 속담의 유래담 |

| | | | |
|--------------------|-----------|----|--------------------------------------------------------------------------------------|
| 사람의 지혜 | 웬태휴 | 전설 | 호랑이의 털이 얼룩덜룩하고 물소에게 잊니가 없는 이유에 대한 유래담 |
| 츠엉 성을 가진 형제 | 도티탄 | 민담 | 가난한 동생을 구박하기만 하고 그 덕을 모르던 형의 집안이 동생이 떠나자 몰락하게 된다는 현실적 민담 |
| 제비가 보내준 박씨와 형제 | 저우티탄응 | 민담 | 가난한 동생이 제비의 보은으로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되고 부자 형이 제비가 준 박씨로 망하는 환상적 민담, 한국의 <홍분불부>와 유사함. |
| 의좋은 형제 | 도티탄 | 민담 | 의좋은 형제가 서로를 돕는 현실적 민담, 한국의 <의좋은 형제>와 유사함. |
| 혹을 가진 두 여자 | 웬태휴 | 민담 | 모난 성격의 부잣집 여자가 낙천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여자를 따라하다 망하는 환상적 민담, <혹부리 할아버지>와 유사함. |
| 어머니의 병환 서신 받은 세 자매 | 땡티름 | 민담 | 병든 어머니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막내딸의 현실적 민담 |
| 호랑이가 구해준 딸 | 누엔티김퍼 | 민담 | 호랑이가 숲속의 아이를 키우다 부잣집에 데려다주었다는 환상적 민담 |
| 모자 바뀔 쓰고 살아난 일곱 형제 | 누구엔티미 두이엔 | 민담 | 버려진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환상적 민담, <헨젤과 그레텔>와 유사함. |
| 무서운 괴물 마잔 | 응티탄프엉 | 민담 | 지혜로운 오누이가 마잔을 만나 도망친 환상적 민담, 한국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오누이가 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올라간 것과 유사한 내용이 있음. |
| 거짓말 잘하는 꾀이 | 도티탄 | 민담 | 거짓말로 사람을 잘 속이던 꾀이가 결국 속임수로 왕이 된다는 희극적 민담, 꾀이를 한국의 방학중 등의 트릭스터형 인물로 볼 수 있음. |
| 지혜로운 막내 사위 | 도티탄 | 민담 | 구박받던 막내 사위의 지혜를 보여주는 희극적 민담 |
| 요술 부채를 가진 고아 범 | 부티킴하 | 민담 | 착한 마음씨를 지닌 고아가 요술 부채를 얻는다는 환상적 민담 |
| 황금 호박으로 부자된 아이 | 부티킴하 | 민담 | 욕심 많은 부자가 착한 아이를 따라하다 망하는 환상적 민담 |
| 의사가 된 땀 | 도티탄 | 민담 | 엉겁결에 공주의 병까지 고치는 명의가 된 땀이 소원을 이룬다는 희극적 민담 |
| 야수와 소녀 | 누엔티김퍼 | 민담 | 죽은 도깨비 신랑이 아내의 눈물에 살아났다는 환상적 민담 |
| 아빠를 부르는 죽은 아이의 목소리 | 엔티터번 | 민담 | 임신한 채 버림받은 여성이 남성에게 복수하는 원혼담 |
| 아내 개심시킨 효자의 지혜 | 응웬후우통 | 민담 | 효자 남편의 지혜로 며느리가 개심하는 희극적 민담 |
| 네모난 뱀 | 응티탄프엉 | 민담 | 게으른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하게 된다는 |

| | | | |
|---------------|-------|----|----------------------------------------|
| 대나무에 걸린 밥술 | 윙티탄프엉 | 민담 | 희극적 민담 게으른 부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희극적 민담 |
|---------------|-------|----|----------------------------------------|

〈표3: 한 편이 제보된 베트남 설화에 대한 소개〉

22명을 표본으로 한 설화의 수집이 베트남의 설화문화를 온전히 보이기 힘들더라도 많은 이들이 쉽게 구술할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베트남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수가 기억하는 설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한 편만 제보된 설화라 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신과 수신> 같은 신화의 경우, 베트남 종족을 형성한 산신과 수신의 결합 이면에 두 신의 경쟁과 갈등도 있었음을 암시하면서 베트남 건국신화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역신 한 편뿐인 <바베 호수>의 경우, 한국의 광포설화인 <장자못 전설>과 유사하지만 그 결말이 달라 흥미롭다. 이 설화세계에는, 떠느리가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한 번 눈 돌린 죄로 바위가 되는 냉혹한 세계의 질서와는 달리 유연하고 관용적으로 세계의 법칙이 적용된다. 심지어 과부의 간청으로 얻은 왕겨는 거지 할머니를 박대했던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려낼 큰 배로 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설화가 택한 서사의 길과 다른 길을 내어 한국 설화와 비교할 만한 가치를 지닌 설화도 상당수이다.

<거짓말 잘하는 꿩이>나 <의사가 된 땀>, <혹을 가진 두 여자> 등의 설화는 낙천적이고 유머를 즐기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되기도 한다. 또한 침략을 당하는 일이 많고 전란이 잦았던 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과 기원이 담긴 작품들도 많다. 전란의 희생자인 누이바네, 응우옌쥬적, 무명 소년 영웅은 여전히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베트남인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여러 편이 채록된 설화는 한국과 유사한 설화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콩쥐팍쥐>와 유사한 <의붓자매 땀과 감>,¹³⁾ 한국의 <아기장수>와 유

사한 화소를 지닌 베트남의 <아기장수>, <구렁덩덩 신선비>와 같은 이물교혼(異物交婚) 계열의 설화들, <지하국대적퇴치담>과 유사한 내용의 닷산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이야기의 원형성이 세부 창작의 기초가 되며, 그 보편성이 전승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4. 베트남 설화 자료의 주요 내용과 성격

3장의 간략한 소개와 분류에 이어 이 장에서는 베트남 설화 자료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하여 그 대체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 표에서는 설화 자료의 내용을 서사 단락을 나누어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사된 설화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서사적 제재이자 핵심 화소, 이야기의 화두가 될 만한 서사적 문제 상황(①), 서사적 문제가 분규화되는 전개(②), 서사적 결말과 뒷이야기(③) 등으로 구획하였다.

또한, 구술자에 따른 변이도 함께 보임으로써 한 설화를 여러 사람이 구술하여 그 내용을 풍요롭게 하거나 변용하는 양상을 드러내려 하였다. 교체될 수 있는 세부적 변이 내용은 정리된 내용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부기하였으며, 서사 단락 전체와 관련된 변이 내용은 문장이나 원문자로 나눈 단락의 끝부분에 괄호를 사용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신화, 전설, 민담의 갈래별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설화의 하위 갈래에 따라 나누어

-
- 13) 다음과 같은 연구는 유사한 설화의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전해경은 한국의 <콩쥐팍쥐>와 <뽕감>을 비교하며, 둘은 착한 주인공의 신분상승과 권선징악을 표층에 드러내며 작은 발을 가진 사람을 미인으로 여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뽕감>에서는 콩쥐에 해당하는 뽕의 활약이 강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지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전해경,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연구-한국의 『콩쥐팍쥐』와 베트남의 『뽕감』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9, 한국베트남학회, 2009, 129-151면.)

살폈다.

1) 신화 자료의 내용적 특성

| | |
|--------------------------------------------|---------------------------------------------------------------------------------------------------------------------------------------------------------------------------------------------------------------------------------------------------------------------------------------------------------------------------------------------------------------------------------------------------------|
| (1)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룡편과 어우꺼 | ① 락룡편(낙룡군)은 용신이고, 어우꺼는 선녀인데(락룡편을 용, 어우꺼를 불사조라 하는 경우도 있음) 둘이 만나 혼인한 후 어우꺼가 태(胎)를 낳음. ② 그 태에서 백 개의 알이 나오고, 그 알에서 백 명의 아들이 태어남.(오십 명의 남성과 오십 명의 여성이 태어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생활환경이 다른 락룡편과 어우꺼가 50명씩 자식을 데리고 각각 바다와 산으로 감.(헤어져 살지만 같이 이 땅을 지키기로 약속했다고도 함) 이들이 비엣족의 시조가 됨.(어우꺼가 데리고 있는 자식 중 왕이 된 웅왕이 반랑국을 세워 대대로 이어감) ③ 베트남인은 용과 선녀의 자녀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음.(바다에 사는 용과 산에 사는 선녀가 결합한 민족이기에 베트남인은 산과 바다에 퍼져 산다고 이해하기도 함.) |
| (2) 산신과 수신 | ① 18번째 웅왕이 사위를 구하자 산신인 선편과 수신인 튀편이 나섬. ② 웅왕이 아홉 코의 코끼리, 아홉 발톱의 닭, 아홉 갈기의 말을 구해오라 하자, 과업을 위해 유리한 지역을 차지한 산신이 이겨 웅왕의 딸과 혼인함. ③ 화가 난 튀편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바닷물이 넘쳐 홍수가 남. |
| (3) 아기장수 | ① 큰 발자국을 밟은 후, 노부부(노모)에게 자식이 태어났으나 3년 동안 견지도 말을 하지도 않음. ② 왕이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인재를 구하려 할 때 아기가 철검, 철마, 철모 등(칼, 말, 갑옷이라고도 함)을 갖춰달라고 하고 밥을 많이 먹어 거인이 됨. 아기장수(맹장, 단동, 웅이, 단비엥 등으로 불림)가 중국군을 물리치고(칼이 부러지자 대나무를 한 줌 뽑아 싸우다가 승리한 경우도 있음) (큰 발자국을 남기고) (삭산에서) 승천함. ③ 아직도 발자국과 맹장 축제가 남아 있음. |
| (4) 물배추여신 | ① 흉년이 들어 벼농사를 망친 소녀가 울고 있을 때 못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면 벼를 살려주마 함. ② 소녀가 죽은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인 귀걸이를 던지자 눈에 귀걸이 모양 물배추가 생겨나 번식한 뒤부터 벼농사가 잘됨. ③ 소녀의 사당을 세워 물배추 여신으로 기림. |

<표4: 베트남 자료 중 신화의 내용>

확보된 자료에서는 창세신화 없이 건국신화가 최고(最古)의 것이다. 참고로 베트남의 창세신화는 20세기 중반에 채록된 <천주신(天柱神)>이다. 그 내용은 태초의 혼돈 속에 거대한 신이 나타나 기둥을 세워 하늘을 떠받쳐 천지를 나누었는데 땅은 네모난 쟁반 같은 모양이 되었고, 하늘은 밥그릇 같은 둥근 모양이 되었으며, 신이 기둥을 허물자 산과 섬이 생겨났고 신이 죽어 못생명들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⁴⁾

14) 최귀목, 앞의 글, 2010, 71-72면.

(1)과 유사한 내용의 건국신화는 『영남척괴열전(嶺南撫怪列傳)』(이하 『영남척괴』),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에도 수록된 것으로 『영남척괴』에서는 <홍방씨전(鴻龐氏傳)>¹⁵⁾으로 소개되었다. 문헌설화의 낙용군과 구희는 (1)의 락롱편과 어우꺼에 해당한다. 문헌설화에서 낙용군은 신농씨의 자손이며, 구희는 중국 왕의 여자 혹은 딸로 등장하는데 구비전승되는 내용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사라졌다. 또한 구희의 지위도 상승되었으며, 알에서 사내아이들만 나온 『영남척괴』와 달리 남녀가 모두 나왔다 하기도 했다. 이 신화가 베트남이란 국가의 민족적 상징이자 민족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삶의 환경이 달라 락롱편과 어우꺼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하지만 『영남척괴』의 낙용군은 구희가 알을 낳기 전에 수부(水府)로 돌아가 자식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구희와 자식들의 울부짖음에 나와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갔을 뿐이다. 아무리 산과 바다에서 생업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한 부모의 자손이라 해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며, 거주 지역의 분화로 인해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¹⁶⁾ 이런 갈등은 (2)에 나타난 산신과 수신의 경쟁과 다툼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 낙용군은 헤어지면서 “산에 있든 물 속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알리고 관계를 끊지 않을”¹⁷⁾ 것을 약속했다. 이후 낙용군은 산과 물

15) ‘홍방씨’는 아주 큰 족속이란 말로 베트남 민족을 포괄하는 표현이라 한다. 최귀묵, 앞의 글, 2010, 76면.

16) 역사적으로도 베트남의 지역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939년 중국으로부터 민족 독립을 회복한 뒤 스스로 대월(大越, 다이비엣)이라 부르던 새로운 베트남 국가는 남쪽에 이웃한 참파(占婆)와 수백 년에 걸친 장기간의 갈등에 빠져들었다. 결국 대월국은 참파를 정복하여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토 확장의 부작용으로, 홍강 중심의 전통적인 주민과 새로 손에 넣은 남쪽 변경지대의 토착민 사이에 문화적, 정치적 균열이 생겼다. 그 결과 북부와 남부 사이에 2백 년 동안 내전이 벌어졌다.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응우옌푹아인(阮福映)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내전의 유산은 청산되지 못했다고 한다.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 역, 『호치민 평전』, 푸른숲, 2003, 36-37면 참조.)

17) 무경 편, 박희병 역,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2000, 21면. 『영남척괴열전(嶺南撫怪列傳)』의 번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함.

의 자손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3) <아기장수>이다. (3) 역시 『영남척괴』에 <동천왕>이란 제목으로 실려있는데 문헌에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상세히 서술되었다. 이를 테면, (3)의 ②에서 쳐들어오려 하는 중국 군대는 은나라, 이를 막으려는 왕은 3대 웅왕으로 나타난다.

웅왕은 낙용군에게 제사지내며 전쟁 대책을 물어 천사(天使) 노인을 만나 아기장수를 찾게 되었다. 아기장수는 (3)과 같은 영웅적 투지와 행적을 보이며 안월 삭산이란 곳에서 승천하자 보답할 길이 없어진 웅왕이 내린 이름이 바로 부동천왕(동천왕)이다. 이 이름은 아기장수가 무령군 부동향(扶董鄉) 출신인 데서 유래하였다. 『영남척괴』에 실린 <월정전(越井傳)>에서는 아예 철마를 타고 은나라 군대를 격파한 아기장수를 낙용군의 화신이라 하기도 했다.

(4)는 흉년에 죽어가는 벼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소녀의 마음을 가늠히 여긴 못할아버지가 물배추¹⁸⁾를 벼와 함께 키우라 알려준 후 소녀가 여신이 되어 모셔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벼농사를 잘되게 하는 데 기여한 이를 신으로까지 높이는 것은 그만큼 베트남에서 벼농사를 중시해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못할아버지는 많은 설화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우니?”라며 다가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존재이다.

이상 살펴본 신화 자료는 『영남척괴열전』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조신에 대한 신화는 여전히 베트

18) 물배추의 역할에 대해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베트남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은 일찍이 이모작 기술을 터득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쌀의 증산을 위해 식물이 효과적인 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타이빈 지역에서는 물배추 등 부평초를 길렀는데 이는 대표적인 녹비(綠肥)의 하나이다.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른 부평초는 물의 증발을 막을 뿐 아니라 잡초도 자랄 수 없게 하며, 3~4개월 뒤에는 썩어 거름이 된다. 비료를 주면 벼는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벼 이삭이 많지 않은 반면, 부평초를 뿌리면 벼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나 벼 이삭이 많아진다. 그래서 부평초를 가장 이상적인 거름으로 여긴다. (전웅옥탐, 이지선 역, 『베트남 생활문화 속에서 식물의 역할』, 『베트남연구』 2, 한국베트남학회, 2001, 169~170면 참조.)

남인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지형과 풍속이 달라도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적으로 전한다. 한편, 전쟁을 끝내고 생업이 편안해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영웅과 농사영웅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다. 낙용군, 못할아버지와 같은 신화적 상상은 전설과 민담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2) 전설 자료의 내용적 특성

| | |
|--------------------------|----------------------------------------------------------------------------------------------------------------------------------------------------------------------------------------------------------------------------------------------------------------------------------------------------------------------------------------------------------------------------------------------------|
| (1) 미쥬 공주와 중수이 왕자 | ① 오우락 나라[구락국]를 다스리는 안양왕이 거북이 탱자이로부터 쌓은 성이 자꾸 무너지는 까닭을 듣게 되고 모든 적을 물리치는 석궁을 만들 발톱을 얻게 됨. ② 중국의 임금이 강화하자며 아들 중수이를 오우락 공주 미쥬에게 장가들게 하여 석궁의 비밀을 빼내려 함. 미쥬 공주는 무심결에 중수이에게 비밀을 알려 주어 중수이가 석궁을 바꿔치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전쟁을 일으킴. 탱자이로부터 미쥬가 적임을 확인한 안양왕이 미쥬를 죽임. ③ 바다로 흘러간 미쥬의 피는 진주가 되고, 미쥬의 시신을 발견한 중수이는 자살함. |
| (2) 환검 호수 | ① 명나라의 침입으로 국토가 유린되었을 때 레로이(黎利)는 한 어부로부터 ‘순천(順天)’이라 적힌 검을 전해 받고(어부 출신 군인의 그물에 물고기 대신 쇠막대가 세 번이나 걸려 군인이 이를 닦아 보니 검임을 알게 되어 레로이에게 전해준 경우도 있음) 검에 맞는 칼자루를 나뭇가지에서 발견함.(레로이에게 직접 거북이가 검을 전해주었다고도 함) ② 레로이는 그 검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레조[黎朝]의 시조가 됨. 전쟁이 끝난 후 왕의 뱃머리에 거북이가 나타나 계속 절하자 왕이 검을 꺼내 주니 거북이 검을 삼킨 채 물속으로 들어감.(거북이가 검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음) ③ 하노이에 있는 그 호수를 환검(호안끼엠, 還劍) 호수라 부르고 호수 중간에 거북이 탑이 있음. |
| (3) 검은 할머니 산 누이바네 | ① 중국군이 쳐들어와 군인 간 남편을 둔 부인을 겁탈하려 함. ② 부인은 적군을 피하려 산에서 뛰어내려 죽음. ③ 검은 피부의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 부인이 죽은 산을 ‘검은 할머니산’이라 부르며 사당을 지어줌. |
| (4) 남섬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 | ① 남섬이라는 곳에 부부(부티텡과 청싱)이라는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전쟁으로 군에 가자 임신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함. ② 막 말을 배우던 아들은 돌아온 남편을 낯설어 하며, ‘우리 아빠는 저녁에 온다’면서 ‘엄마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닌다’고 하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아내가 자살함. ③ 남편이 우는 아들을 달래려고 불을 켜니 아들이 그림자를 보고 아빠라 함.(이후에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덧붙은 경우도 있고, 아내를 만나 사죄하기 위해 남편이 자살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함.) |
| (5) 민병대를 조직하여 프랑스에 맞선 | ① 베트남 독립운동의 영웅인 응우옌쥬는 결혼 잔치를 하는 배로 위장하여 프랑스 배를 불태우는 공적을 세움. ② 친구의 배신으로 응우옌쥬가 프랑스군에 잡혀 공개처형 당할 때, 그는 ‘잡초를 다 뽑을 수 없듯이 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 끝까지 싸울 것’, ‘내가 죽으면 바람이 되어 국기를 펄럭이게 해 줄 것’ 등의 말을 남기고 용감히 죽음. ③ 누군가 프랑스군이 |

| | |
|-------------------------------------------|----------------------------------------------------------------------------------------------------------------------------------------------------------------------------------------------------------------------------------------------------------------------------------------------------------------|
| 응우옌쥬적 | 훼손하지 못하게 시신을 감추어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함. 응우옌쥬적에게 감사하는 기념행사가 매년 열림. |
| (6) 전쟁귀신 | ① 고향 마을에 미군이 남긴 병커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미군이 겁탈하려 하자 거기서 혀를 깨물어 죽었다고 함. ② 여자의 영혼이 병커에 있어 남자가 밤에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함. ③ 한 똑똑한 남자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바보가 됨. |
| (7) 분신으로 적군의 무기고 폭파한 소년 영웅 | ① 베트남전쟁 때 부모를 잃은 16세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적군 기지를 살핌. ② 소년은 적군 기지에 기름을 납품하는 일꾼에게 접근해 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됨. 기회를 엿보던 소년은 소년은 기름 부은 자기 몸에 불을 붙여 군량고와 무기고를 폭파시킴. ③ 소년의 공적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안타까움. |
| (8) 쩌우까우 유래 | ① (쌍둥이 혹은 아주 닮은) 형과 동생이 형수(형제를 가르치던 스승의 딸로 설정된 경우가 있음)와 함께 살았음. ② 형수가 동생을 형으로 착각해 안았는데 이를 형이 목격함.(이 장면이 빠지고, 결혼 후 형수만 아끼는 형에게 동생이 섭섭함을 느끼거나, 동생이 자기로 인해 형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염려하는 경우도 있음) 동생이 집을 나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 바위가 되고, 형이 동생을 찾다가 까우 나무가 되며, 형수는 형을 찾다가 나무를 감는 찌우 덩굴이 됨. ③ 돌가루와 덩굴 잎, 나무 열매를 같이 씹는 혼인 풍속이 생겨남. |
| (9) 하늘과 땅을 닮은 떡 반죽과 반자이 | ① 왕이 22명의 왕자 중 왕위를 물려 줄 왕자를 고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함. ② 18번째 료우 왕자의 꿈에 소녀가 나타나(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함) 쌀로 동그란 반자이와 네모난 반죽을 만드는 법을 알려 줌. 왕은 특별한 모양은 없으나 맛이 좋은 데다 하늘과 땅의 형상을 본뜨고 부모를 기리는 뜻을 품었으며 료우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줌. ③ 오늘날에도 설날에 떡을 만들어 먹음. |
| (10) 수박 유래 | ① 18대 옹왕(뵈 흥봉)이 욕심이 없고 스스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이안땀에게 공주를 시집보냈으나 그가 왕의 선물도 달가워하지 않자 섬으로 쫓아버림. ② 사위가 새가 떨어뜨린 수박을 키워 어부의 물고기와 교환해 마이안땀 수박이 널리 퍼짐. ③ 왕이 사위의 능력을 인정해 다시 불러들이고 수박을 마이안땀이라 부름. |
| (11) 옥수수 유래 | 베트남 사신이 중국 오나라에 갔다가 옥수수를 먹어 본 후 몰래 씨앗을 베트남으로 가져와 퍼뜨림. |
| (12) 엄마 젖의 맛이 나는 과일 까이 부 스아 | ① 모자가 살았는데 어느날 아들이 집을 나가 엄마가 애타게 기다림. ② 아들이 세상을 떠돌며 고생하다가 엄마가 그리워 집에 왔으나 아무도 없음. 아들이 한 나무를 붙잡고 울자 열매가 떨어짐. 열매의 과즙은 엄마젖 같고, 그 모양은 너무 울어서 빨개진 엄마의 눈 같았으며, 열매를 떨군 나무줄기는 엄마의 거친 손 같았음. ③ 아들이 그 과일을 알려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지금도 병문안용으로 많이 쓰임. |
| (13) 어머니를 구한 효행 | ① 부잣집에 못된 엄마와 착한 아들(율란)이 살았는데 엄마가 시주하는 스님에게 (개)고기를 줌. ② 엄마가 죽어 저승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율란)이 저승문이 열리는 날에 저승으로 들어가(엄마의 고통을 줄여달라 기도를 올려) 지옥에서 엄마를 구해냄. ③ 아직도 10월 15일(7월 15일이라 하기도 함)에 부모를 위해 효도하고 기도함. |
| (14) | ① 섬에 괴물이 나타나 어부들을 괴롭히자 아버지가 온몸에 독을 바르고 |

| | |
|--------------------------------------|----------------------------------------------------------------------------------------------------------------------------------------------------------------------------------------------------------------------------------------------------------------------------------------------------------------------|
| 바다 괴물 몰리치고 바위가 된 아버지와 아들 | 바다로 나감. ② 아버지는 괴물에게 머리가 먹혀 죽어 독으로 괴물을 죽게 함.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안고 올다가 독이 율아 죽음. ③ 부자가 죽은 자리에 바위 둘이 생겨 부자 바위라 부름. |
| (15) 바위가 된 여인 | ① 어릴 때 헤어진 남매가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혼인함. ② 남편이 아내 머리의 이를 잡아주다가 상처로 인해 아내가 동생임을 알게 되어 아내를 떠남. ③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내는 강 앞에 바위가 됨. |
| (16) 홍룡한 선생님 쭈반안 | ①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괴로워하자 쭈반안이 제자인 용왕의 아들들에게 비가 내리게 도와달라고 함. ② 용왕의 아들들이 벼루와 붓으로 비를 오게 하니 빗물의 색이 검은색이었음. 갑작스런 천동소리에 쭈반안이 나가보니 용왕의 아들들이 이무기가 되어 죽어 있었음. ③ 쭈반안이 이들의 장례를 마친 후 벼루를 던졌더니 던진 자리에 연못이 생겨남. |
| (17) 바베 호수 | ① 마을 사람들이 거지 할머니의 동냥을 모두 거절했는데 가난한 과부 모자가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옴. ② 밤에 거지 할머니의 코고는 소리에 방에 가보니 이무기 모습을 한 할머니가 내일 큰일이 날 것이라며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함. 과부가 마을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묻자 할머니가 쌀겨 두 개를 줌.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땅에서 물이 솟구쳐 마을이 잠겼는데 과부가 쌀겨를 내려놓자 배로 변해 동네 사람들을 모두 구함. ③ 동네는 호수로 변했으나 과부집만 섬으로 남음. |
| (18) 꾸우정 섬의 절 | 꾸우정 섬 해변에 죽은 고래뼈로 절을 지었는데 절에서 신통한 일이 많이 일어남. |
| (19) 백주년 학교 괴담 | 백년이 된 쭈반안 고등학교에 과로로 죽은 학생회장 귀신이 나타남. |
| (20) 물귀신 나오는 서호 | 고등학교 근처 서호에는 물귀신이 있어 수영하는 사람들을 물밑에서 끌어가는데 실종된 사람들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음. |
| (21) 강가에 사는 귀신의 신부 | ① 강가에서 발을 씻던 여자가 반지와 목걸이 같은 패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옴. ② 다음날 남자 귀신이 찾아와 패물을 가져갔으니 자신의 신부라 하며 강제로 혼인한 후 여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 ③ 이후로 강에 있는 물건을 주워서도 떨어뜨려서도 안된다는 풍습이 생김. |
| (22) 소라게 유래 | ① 바람 난 아내 뱀을 쫓아 죽인 할아버지에게 남편 뱀이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옥을 선물함. ② 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가 새의 해코지를 입어 감옥에 갇혔으나 새에게 들은 전쟁 정보를 관군에 알려 풀려남. 오리고기를 대접하려는 친구의 집에서 오리의 말을 듣고 오리 대신 새우를 먹어 오리로부터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옥을 선물 받음. 할머니가 바다 속 왕에게 남편의 옥을 훔쳐 바치자 할아버지는 모래로 바다를 덮어 길을 만들려 하다 죽음. ③ 할아버지는 모래를 뿜는 소라게가 됨. 이와 관련해 무모한 일을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음. |
| (23) 쥐가 열 두 띠의 첫 | 하늘에서 동물을 초대하여 도착하는 순으로 동물의 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쥐가 물소 뺨에 올라타고 오다가 일등을 하여 쥐, 소 등의 순으로 십이지신이 정해짐. |

| | |
|--------------------------------------|-------------------------------------------------------------------------------------------------------------------------------------------------------------------------------------------------------------------------------------------------------|
| 번째가 된 이유 | |
| (24) 두꺼비가 이를 갈면 비가 오는 이유 | 심한 가뭄이 들자 두꺼비가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따지니, 옥황상제가 앞으로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두꺼비가 이를 가는 소리를 내면 비를 내리주겠다고 약속함. |
| (25) 우물 안 개구리 | 세상이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만하다고 생각했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큰 동물에 밟혀 죽음. |
| (26) 사람의 지혜 | ① 채찍질 당하며 일하는 물소에게 호랑이가 왜 사람에게 반항하지 못하냐 묻자 물소가 '사람의 지혜' 때문이라 답함. ② 호랑이가 농부에게 지혜를 보여 달라고 하니 농부가 집에 두고 왔다고 하고, 자신이 지혜를 가지러 간 사이 호랑이가 물소를 잡아먹으면 안되니 나무에 묶어 두겠다고 함. 다 묶자 농부는 나무에 불을 지피며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함. ③ 물소는 옷다가 바위에 자빠져 윗니가 날아가고 그슬린 호랑이의 털은 얼룩덜룩해졌음. |

<표5: 베트남 자료 중 전설의 내용>

(1)~(6)의 전설은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그에 대한 항전이 거셌던 베트남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은 『영남척괴』에 <금구전(金龜傳)>으로 실려있다. 안양왕은 낙용신의 자손인 웅왕이 대를 이어 다스리던 반랑국[文郎國]을 멸망시키고 구락국을 세웠다. 초한쟁패기에서 활동했던 중국 군웅 조타(趙佗)가 중국 광둥성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남월(南越)을 건국하고 구락국을 쳐들어가 멸망시켰는데 이때의 일이 전설로 남아 있다. 억울하게 죽은 미쥬 공주의 피가 엉겨 이룬 진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패배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조타에 의해 패배한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부터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천년 가까이 중국 지배하에 있던 베트남은 938년 비로소 독립을 이룬다. 독립 이후에도 계속된 중국의 침략에 시달렸는데, 중국군에 희생당한 ‘누이바낭’을 기억하는 산의 이름은 여전히 그러한 침해를 증언하고 있다.(3) 또, 잦은 전쟁은 베트남 민중들의 생활 저변과 인간관계의 심층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군인 갔던 남편의 오해로 인해 자살한 남섬의 아내에 대한 설화적 기억은 전쟁이 얼마나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지 각인

시킨다.(4)

독립 왕조 시기에도 베트남은 원나라, 명나라 등과 계속 전쟁을 벌이다 1406년에 다시 명나라에 복속되었다. 레 왕조의 태조, 레이가 1428년 명나라를 몰아냈는데 (2)는 레 왕조 건국 전후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설화는 베트남의 수호신[낙용신의 사자(使者) 거북], 민중[어부나 군인], 베트남의 산천의 정기[자루를 보낸 나무], 영웅적 지도자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 민족의 독립을 쟁취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¹⁹⁾

이후, 1802년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어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부당한 점령에 대한 반감과 저항 정신은 (5)의 응우옌쑹적이 잘 대변하고 있다. 그는 처형장에서 사형당할 때, ‘다 뽑을 수 없는 잡초처럼 나 같은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 끝까지 싸울 것’이라 했는데 그 같은 ‘잡초’를 키우고 퍼지게 하는 매개는 바로 그의 강렬한 발언과 그의 삶을 기억하는 전설이다. 또한, (6)과 (7)은 1964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쟁의 적군에 대해 가진 적개심과 원한을 잘 드러낸다.

(8)과 (9)는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으로 음식 유래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훌륭한 맛을 이루는 데에서 융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베트남인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9)는 베트남 창세신화와 연관된 것으로도 보이며, 여기 나타난 효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쌀의 고마움을 기억하는 태도 등은 다른 설화에서도 반복적으로 중시된다. 이 밖에 호수와 강, 바위, 동물²⁰⁾과 식물, 기후 등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유래담이 전설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베트남 전설은 베트남의 문화나 환경을 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보게 해준다. 즉,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쌀, 과일, 동물, 호수 등은 음식

19) 최귀목, 『문학의 창으로 본 베트남』,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7면.

20) 특히 동물과 관련해서는 물소가 자주 등장한다. 베트남의 논이 우기에는 대부분 무릎까지 차는 물 속에 잠겨 있으므로 물소가 우리의 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한다. (전혜경, 「한국 베트남 민담 비교연구-모기 기원담과 소의 기원담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8, 한국베트남학회, 2007, 103면.)

이나 동물, 지형일 뿐이나 베트남인들의 눈에는 그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혼한 쌀은 가장 소중한 음식이며, 까이부스까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한다. 물소는 쥐에게 일등 자리를 빼앗기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우직한 동물이자, 환검 호수는 평화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의 문화와 환경은 전설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정리하자면, 고대와 중세에 이어 베트남 독립운동,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은 전설을 통해 승리와 패배의 기억을 간직하는 한편, 영웅의 행적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전설은 베트남인의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설은 베트남인의 생활 문화나 환경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전설에 속한 많은 유래담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엔 심상한 일상적 사물과 환경이 베트남인들이 부여한 특별한 의미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해준다.

| | |
|---------------------|-------------------------------------------------------------------------------------------------------------------------------------------------------------------------------------------------------------------------------------------------------------------------------------------------------------------------------------------------------------------------------------------------------------------------------------------------------------------------------------------------------------------------------------------------------------------------------------------------------------------------------------------------------|
| (1) 의붓자매 땀과 감 | ① 계모가 자신의 친딸 감을 편애하며 계녀 땀을 구박하고, 감도 착하고 예쁜 땀을 질투하여 땀의 공을 가로챈. ② 곤경에 처할 때마다 못할아버지(산신령, 할머니 요정이라고도 함)가 나타나 도와줌. 못할아버지가 키우게 한 물고기를 계모와 감이 잡아먹자 땀이 물고기뼈를 묻음. 땀은 까치의 도움으로 일을 마치고, 물고기뼈를 묻은 곳에서 발견한 옷을 입고 잔치에 감. 잔치에 가는 길에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왕이 주웠다가 땀의 발에 맞춰 보고 땀과 혼인함. 왕비가 된 땀은 계모와 감에게 죽임을 당함.(땀이 새, 나무, 베틀로 환생하자 언거꾸 죽이려한 경우도 있음) 땀은 티나무(차나무, 열나무라고도 함) 열매로 변해 한 노파의 집에서 노파 몰래 집안일을 함. 노파가 땀의 정체를 알게 되자 땀은 노파를 엄마처럼 여기며 함께 살게 됨. 어느날 왕이 지나다 나물을 대접 받고 만든 이를 불러 땀과 재회함. ③ 궁궐로 돌아온 땀이 더 예뻐진 모습에 놀라 방법을 묻는 감에게 땀이 끓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감이 이를 따르다 죽음.(다시 살아나 왕궁에 돌아온 땀을 보고 감이 놀라고 분해 심장이 터져 죽는 경우도 있음) 이후 딸인 줄 모르고 액젓을 먹은 계모가 사실을 알고 놀라 죽음.(감 모녀가 거지가 된 경우도 있음) |
| (2) 형제와 별나무 | ① 욕심 많은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땅의 별나무만을 남겨줌. ② 별나무 열매를 먹은 까마귀(그냥 새 혹은 독수리, 봉황새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가 동생에게 세 뽕 정도의 조그만 자루를 만들어 오라 하여 자신의 등에 태워 금섬으로 가서 금을 담게 함. 형이 자신의 재산과 동생의 별나무와 바꾸고 동생을 따라하러 큰 자루를 만들어 금섬에 감 ③ 금을 담아 오는 길에 자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까마귀가 형을 떨어뜨려 형은 바다에 빠져 죽음. |
| (3) 금구덩이 | ① 욕심 많은 형이 도끼 한 자루를 동생에게 주며 아버지 제사도 챙기라 함. ② 나무하던 동생이 깜박 잠들자 원숭이때가 나타나 자기들끼리 얘기 |

| | |
|------------------------|---------------------------------------------------------------------------------------------------------------------------------------------------------------------------------------------------------------------------------------------------------------------------------------------------------------------------------------------------------------------------------------------------------------------------------------------------------------------------------------------------------------------------------------------------------------------------------------------------------------------------------------------|
| 은구덩이 | 하더니 금구덩이(금상자라 하기도 함)로 던져 동생이 부자가 됨. ③ 형이 동생을 따라하다가 원숭이때가 은구덩이(은상자라 하기도 함)로 던진다고 하자 금구덩이로 던져 달라고 말해 원숭이들이 형을 깊은 협곡(강이라 하기도 함)으로 던져 버림. |
| (4) 츤잉 성을 가진 형제 | ① 츤잉 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부자이고 동생은 가난했음. ② 동생의 아들이 형의 집에 밥을 얻으러 오자 형수가 쫓아냄. 어느날 형네 도둑이 들어 동생이 형을 구해주었으나 형수는 계속 동생네를 도외주지 않았음. 화가 난 동생이 다른 먼 동네로 떠나가자 형네 도둑이 들어 형 부부를 죽임. ③ 동생이 형의 아들을 데려다 키우자 꿈에 형수가 나타나 사과하고 아들을 부탁함. |
| (5) 제비가 보내준 박씨와 형제 | ①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자 동생을 쫓아냄. ② 가난하게 살던 동생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 열린 박으로 부자가 됨. 형이 모든 재산을 줄 테니 부자가 된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며 동생을 따라 했으나 형의 박에서는 독사와 독충이 나옴. ③ 형이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 했으나 동생이 거절함. |
| (6) 의좋은 형제 | 가난하지만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밤에 서로 몰래 수확한 벼단을 형제의 집 앞에 둠. |
| (7) 괴물 퇴치하고 공주와 결혼한 닳산 | ① 의형제 닳산과 다음(리텅, 니히통이라 하기도 함)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다음이 제물이 될 차례가 되자 닳산이 대신 가서 괴물(뱀이라 하기도 함)을 죽임.(여기까지만 구술되고 이후 희생제 의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음) ② 닳산의 공을 차지한 다음이 공주와 혼인을 왕에게 약속받았으나 공주가 산으로 도망침.(공주가 독수리에게 잡혀가기도 함) 닳산이 공주를 구해냈으나 다음에 의해 우물(동굴)에 갇힌 신세가 됨.(이후, 동굴에서 닳산이 용왕의 딸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황금 조개껍데기를 선물 받아 공주를 부르기도 하며, 독수리에 의해 동굴에 잡혀 있던 왕자를 구하고 탈출했다고도 함) ③ 말을 못하던(닳산의 공을 가로친 의형제에 대한 억울함 혹은 닳산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때문이라 이유를 밝히기도 함) 공주가 입을 열어 진실을 밝히고 닳산과 혼인하고 닳산은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림.(동굴에 불을 지르려던 의형제 모자의 만행이 밝혀져 추방당해 가는 길에 모자에게 벼락이 내려 즉사했다하기도 하고, 닳산이 의형제를 용서했으나 의형제가 집에 가는 길에 벼락을 맞아 별레가 되었다고도 함.(닳산이 있던 동굴을 닳산 동굴이라고 부른다 하기도 함.) |
| (9) 흑을 가진 두 여자 | ① 낙천적인 흑부리 여자가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도깨비 잔치를 하는 곳에 찾아가 도깨비를 따라 노래 부름. 도깨비들은 노래에 감탄해 여자에게 꼭 다시 오라고 하며 ‘귀한 흑’을 떼어서 보관함. ② 먼 마을 부잣집 못된 아가씨가 도깨비를 더럽다고 꺼리며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댔. ③ 짜증 난 도깨비가 한쪽 볼에 다른 흑까지 붙여줌. |
| (10) 새가 된 할머니 | ① 고아를 키우고 살던 할머니가(손자를 키우고 살던 외할머니가) 자신이 아파도 물조차 떠오지 않는 아이를 두고 새(제비라고도 함)로 변해 떠나려 함.(아예 떠나갔다고 하기도 함) ② 울고 있는 아이에게 못할아버지가 나타나 높은 산에 올라가 황금 연꽃을 가져오면 할머니로 돌아올 것이라 말함. ③ 아이는 어렵사리 황금 연꽃을 구해 할머니를 살리고(아이가 멀리 있는 웅달샘까지 가서 물을 떠와)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음. |
| (11) 어머니의 병환 서신 | ① 세 딸을 시집보낸 후 병이 난 어머니가 너구리를 불러 딸들에게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함. ② 시댁 일을 마치고 간다는 큰딸은 거북이로 변하고, 옷을 다 만들고 간다는 둘째딸은 거미로 변함. ③ 빵을 만들던 막내딸 |

| | |
|-----------------------------------|--------------------------------------------------------------------------------------------------------------------------------------------------------------------------------------------------------------------------------------------------------------------------------------------------------------------------------------------------------------------------------------------------------------------------------------------------------------------------------------------------------------------------------------------------------------------------------------------------------------------------------------------------------------------------------------|
| 받은 세 자매 | 은 밀가루를 버리고 바로 가서 효녀라 칭송 받음. |
| (12) 호랑이가 구해준 딸 | ① 딸이 계모의 구박을 받자 사냥꾼 아버지가 딸을 숲으로 데려감. ② 아버지와 헤어진 딸이 호랑이에게 양육되다가 호랑이가 부자 부부에게로 데려다줌. ③ 딸이 열심히 공부하여 왕이 된 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음. |
| (13) 모자 바뀌 쓰고 살아난 일곱 형제 | ① 집이 가난하여 일곱 형제는 아버지에 의해 버려짐. ② 일곱 아들을 둔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됨. 주인이 자기 일곱 아들 머리에 모자를 씌워 두고 일곱 형제를 잡아먹으려 하자 막내의 기지로 모자를 바뀔 써서 살아남. ③ 쫓아오던 주인을 죽이고 일곱 형제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잘살게 됨. |
| (14) 속에 있는 물을 버리려 가겠습니다. | ① 시집가면 무엇이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라 친정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음. ②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함. ③ “속에 있는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
| (15) 무서운 괴물 마잔 | ① 엄마가 심부름 가는 남매에게 마잔을 조심하라 함. ② 마잔을 만난 오누이는 기둥 위로 도망친 후 기둥에 기름을 바름. ③ 뱀 같은 마잔이 미끄러워 올라오지 못함. |
| (16) 거짓말 잘하는 꿰이 | ① 부모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부부와 살던 꿰이는 거짓말에 능함. ② 이 소문을 들은 부자가 꿰이를 시험하려 자신을 대문 밖으로 나가게 하면 돈을 주겠다 하자 꿰이가 대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여 부자를 대문 밖에 있게 함. 꿰이는 작은 아버지네 돼지를 몰래 팔고 돼지꼬리를 잡고 땅 밑으로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소똥에 바구니를 씌워 놓고 새를 잡았다 하기도 하며, 부부에게 서로 상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부를 놀래키기도 함. 작은아버지가 대나무로 만든 상자에 꿰이를 넣고 꿩꿩 묶어 강을 빠뜨려 죽이려 하자 꿰이가 집에 있는 거짓말책을 가져다 달라며 시간을 끌다가 작은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나가던 사람을 대신 간혀 죽게 함. 무사히 도망친 꿰이는 금을 물속에 빠뜨렸다며 말탄 관리의 옷과 말을 훔침. 그 옷을 입고 집에 가서 강물에 들어가 저승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작은아버지 부부를 죽게 함. 작은아버지 유산을 탕진한 꿰이는 함정을 파 코끼리를 잡은 뒤 똥구멍으로 새를 들어오게 한 다음 마개로 구멍을 막아 코끼리를 하늘로 날게 함. 코끼리는 궁궐로 내려갔는데 왕이 신기해하며 꿰이를 잘 대접해줌. ③ 꿰이가 날고 싶어하는 왕에게 바다를 날 때 코끼리가 물을 먹어야 하니 마개를 빼라 말하여 왕은 바다에 떨어져 죽고 꿰이가 왕이 됨. |
| (17) 지혜로운 막내 사위 | ① 장모와 장인이 막내 사위를 가난하다 무시했음. ② 장인이 ‘웅덩이의 물을 다 마실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며 만약 마시지 못할 경우 재산을 나눠준다는 각서를 씌. 사위가 웅덩이로 흘러드는 강물을 막게 하여 위기를 모면함. ③ 이후로 장인과 장모가 사위를 인정함. |
| (18) 똑똑한 아이 | ① 인재를 찾기 위해 왕이 길을 떠남. ② 왕은 농부에게 물소가 하루에 얼마나 땅을 갈 수 있는지 묻자 찢찢대는 아버지 대신 아이가 왕이 타고 온 말이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되물어 위기를 넘김. 왕이 수소 세 마리를 주며 아홉 마리의 새끼를 만들어 오라며 그렇게 못하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벌주겠다 하자 아이가 아버지가 동생을 낳아주지 않는다고 떼쓰며 울어 위기를 넘김. 왕이 새 한 마리로 밥상 세 개를 차리라 하자 아이가 바늘을 주며 새를 요리할 칼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 위기를 넘김. 이웃 나라에서 큰 우렁이를 보내 실로 꿰라는 과제를 내자 아이가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로 우렁이 껍데기를 통과하게 함. ③ 아이는 왕국의 신하 |

| | |
|---------------------|------------------------------------------------------------------------------------------------------------------------------------------------------------------------------------------------------------------------------------------------------------------------------------------------------------------------------------------------------------------------------------------------------------------------------------------------------------------------------------------------------------------------------------------------------------------|
| | 가 됨. |
| (19) 요술 부채를 가진 고아 범 | ①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부채만을 가진 고아 범은 부자 프영의 집에서 물소지기 일을 했음. ② 물소 한 마리가 사라져 울고 있는 범에게 못할아버지가 나타나 범의 부채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요술부채로 만들어 줌. 프영은 요술부채를 탐내며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바꾸자 했으나 범이 부모의 유산이라며 거절함.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은 부자 프영의 제안을 따름. ③ 거지 할아버지가 못 할아버지로 변해 범에게 부채를 돌려주고 욕심 많은 프영은 물소로 변하게 함. |
| (20) 황금 호박으로 부자된 아이 | ① 한 아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이듬해 그 제비가 씨앗을 물고와 이를 심음. ② 씨앗에서 큰 호박이 열리고, 그 호박을 자르니 금이 가득해 아이는 부자가 됨. ③ 이 소식을 들은 부자 푸영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쳐주었는데 푸영의 호박에서 뱀이 나와 푸영을 물어 죽임. |
| (21) 백 마디 대나무 | ① 한 남자가 지주 영감의 딸과 혼인을 약속 받고 머슴 노릇을 해주기로 했으나 3년이 지나 영감은 딸을 부잣집에 시집보내기로 결정함. ② 남자는 백 마디의 대나무를 가져 오면 딸과 당장 결혼시켜주겠다는 지주의 말을 믿고 산에 가서 못할아버지(못할아버지, 산신령이라고도 표현함)의 도움으로 대나무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주문을 익히게 됨. 토막 난 대나무를 들고 간 남자는 주문으로 긴 백 마디 대나무를 만들고 영감과 부잣집 사돈까지 대나무에 달라붙게 함. ③ 영감이 살려 달라 애원하며 딸과 혼인을 허락함. |
| (22) 대나무 속 작은 여인 | ① 노부부에게 대나무 마디 안에 살 수 있을 만한 새끼손가락 크기의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숲에 버림. ② 막내왕자가 숲에서 수박을 반쯤 먹다 버렸는데 나머지를 아이가 먹고 임신해 아이를 낳음. 사냥을 하다가 자기 아들을 본 왕자는 여자에게 청혼해 궁궐로 데리고 옴. 왕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만든 옷과 음식을 보고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 함. 새끼손가락 아이가 갑자기 커지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담은 음식을 준비함. ③ 왕이 며느리와 음식을 흡족해하며 막내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줌. |
| (23) 의사가 된 뱀 | ① 뱀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남자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를 좋아했는데 마을의 나쁜 사람이 소녀를 위협해 혼인하려 함. ② 바위를 던져 혼인을 막은 뱀에게 양심을 품은 나쁜 사람은 고을 관리에게 뱀이 유명한 의사라고 거짓말하여 그 관리의 부인을 치료하도록 함. 뱀은 처음에 못한다 했다가 맞아 죽을 지경이 되자, 부인 앞에서 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며 계속 '아프다'라고 우스꽝스럽게 말해 웃음으로 관리 부인의 목의 가시를 빼냄. 왕도 뱀을 소개 받아 말을 하지 않는 공주의 병을 고쳐 공주가 세 마디 말을 하면 사위 삼겠다고 함. 뱀이 공주 앞에서 계속 답답한 것을 하자 공주가 세 마디 말을 함.(뱀술을 올려놓는데 밀돌 두 개만 써 계속 쓰러뜨리자 공주가 참다못해 돌을 한 개 더 넣으라는 말을 하는 식임) 왕은 아픈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뱀에게 이들의 병을 모두 고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 함. 뱀이 불치병 환자만 남게 한 후 그 중 죽어가는 한 명의 환자를 태우니 모두 도망감. ③ 왕이 공주와 혼인시키려 했으나 뱀은 마을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함. |
| (24) 이물고혼 | ① (고귀한 존재가 천상에서 죄를 지어, 혹은 부모가 야자 열매인 코코넛을 먹거나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셔서) 징그러운 존재(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나 코코넛이나 해골같이 생긴 둥근 모양)로 태어남 ② (일을 해주던 부잣집의 막내딸이 잠시 미남자로 변신할 때 옛모기도 함) 막내딸에게 청혼하여 승낙하자(승낙을 위해 하나의 화살로 새 아홉 마리 잡기, 아홉 |

| | |
|-----------------|---------------------------------------------------------------------------------------------------------------------------------------------------------------------------------------------------------------------------------------------------------------------------------------------------------------------------------------------------------------------------------------------------------------------------------------------------------------------------------------------------------------------------|
| | <p>지게 땀감 하기, 막내딸의 마음 얻기 등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음) 혼인 후 멋진 모습으로 변신함.(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음) 언니들이 질투하여 시련(언니들이 막내를 죽이려 하거나 먼 섬으로 보내거나 신랑의 겹질을 태움)을 겪음.(언니들 대신 장인이 사위를 인정하지 않고 딸을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려는 경우도 있음) ③ 막내딸의 노력(섬에서 칼과 부싯돌로 살아가다가 연기를 내어 남편과 재회하기도 하고, 섬에서 닭을 키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남편이 찾아오게 됨)이나 신랑의 노력(강아지, 고양이, 뱀을 구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 꼬리를 얻기도 함)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헤어졌던 부부가 결합하게 됨.</p> |
| (25) 야수와 소녀 | <p>① 자식 없는 부부가 기도를 하자 도깨비가 딸을 낳으면 자기에게 시집보내라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어 쌍둥이 딸을 낳음. ② 언니는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곧 망해 도깨비에게 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함. 도깨비가 거절해 언니가 앙심을 품고 독으로 도깨비를 죽임. ③ 동생의 눈물이 도깨비 위에 떨어지자 도깨비가 잘생긴 남자로 변해 살아남.</p> |
| (26) 선녀와 나무꾼 | <p>① 사슴의 도움으로 나무꾼(그 이름을 장유라고 하기도 함)이 목욕하는 선녀(그 이름을 아즉이라고 하기도 함)의 옷을 훔침. ② 나무꾼이 금기를 어기고 아이 둘을 낳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줌. ③ 선녀는 아이 둘을 안고(이에게 빚을 주고 남겨 두는 경우도 있음)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꾼은 외롭게 살게 됨.(이 밖에, 나무꾼이 선녀 할머니의 도움으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를 만난 후 줄을 타고 땅으로 내려갈 때 까마귀가 잘못된 신호를 주어 나무꾼과 아이가 바다에 떨어졌으나 용왕의 도움을 살아나 하늘에서 선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옥황상제가 까마귀의 죄를 물어 매년 음력 7월에 까마귀가 꼬리를 물어 다리를 만들어 선녀 아즉과 나무꾼 장유를 만나게 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함. 한편, 천상 세계에 살던 나무꾼이 천마를 타고 노모를 보러 내려갔다 온다 했는데 노모가 밥을 먹으라 하자 천마에서 내려와 말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무꾼은 죽어 수탉이 되었다는 이본도 있음)</p> |
| (27) 달 속으로 간 꾸이 | <p>① 친척집에서 양육되던 고아 꾸이(꺄이, 아이, 소년, 남자 등으로도 지칭됨)는 심한 장난으로 버려짐.(이 부분이 생략되기도 함) ② 신을 만난 꾸이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를 얻고 더러운 물을 주면 안된다는 금기를 들음(자신이 죽인 호랑이(치타라고 하기도 함)를 어미가 나뭇잎으로 살리는 것을 보고 잎의 효능을 알게 된 경우도 있음. 이후 그 잎으로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살리자 그가 나뭇잎에 더러운 물을 주면 안된다는 금기를 알려줌.) 사람을 살리는 나뭇잎으로 부자를 살리고 부자집 딸과 혼인함. 꾸이와 다툼(부인이 죽었다가 개가 내장을 내어준 덕분에 환생한 후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병에 걸렸다고도 함) 부인이 금기를 어기고 나무에 더러운 물을 주자(부인이나 꾸이가 오줌을 싸다고도 함) 나무와 꾸이가 달로 올라감. ③ 달(보름달이라 특정하기도 함)을 자세히 보면 나무와 사람(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도 함)이 있음.</p> |
| (28) 신기한 물병 | <p>① 착한 남자가 까마귀로부터 참새를 살려주고(노루를 살려주기도 함) 신기한 물병을 얻어 집에 갖다 놓았는데 못생긴 아내가 물병의 물로 씻자 예뻐지고 흐른 목욕물이 밭의 파를 싱싱하고 크게 자라게 함. ② 남자는 예쁜 아내와 떨어지기 싫어 화상(畫像)을 갖고 다니며 논에서 일했는데 앙심을 품은 까마귀(버를 못 쪼아 먹게 하자 앙심을 품었다 하기도 함)가 화상을 궁궐에 떨어뜨려 황제가 아내를 데려가 왕비로 삼음. 왕이 웃지 않는 왕비를 웃게 한 이에게 상을 내린다 하였는데, 남편이 큰 파를 들고</p> |

| | |
|-------------------------|--------------------------------------------------------------------------------------------------------------------------------|
| | ‘파는 사면 내 사랑도 받아 달라’고 읊자 웃지 않던 왕비가 웃음. ③ 황제가 자기도 웃겨 보려고 옷을 바꿔 입자는 제안을 하자 황제옷을 입은 남자가 황제를 쫓아내고 왕이 됨. |
| (29) 아빠를 부르는 죽은 아이의 목소리 | ① 한 남자가 임신한 여인을 배반하고 다른 여인에게 가버림. ② 임신한 여인이 양심을 품고 강물에 빠져 죽음. ③ 강물 속에서 죽은 아이가 아빠를 부르자 남자는 그 소리에 이끌려 물속으로 들어감. |
| (30) 아내 개심시킨 효자의 지혜 | ① 남편이 장사로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수발을 소홀히 함. ②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를 살찌워 팔아먹자고 제안함. 시아버지가 몸이 좋아져 집안일을 많이 도움. ③ 남편이 팔자고 하니 며느리가 반대함. |
| (31) 네모난 뱀 | ① 게으른 남편이 아내에게 논에서 굉장히 길고 널따란 몸체를 지닌 뱀을 보아 놀라서 빨리 집에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함. ② 너무 크다는 아내의 지적에 뱀의 길이를 계속 줄이다 보니 결국 폭과 길이가 같은 네모난 뱀이 되어버림. |
| (32) 대나무에 걸린 밥술 | ① 남편이 게으른 아내에게 밥술을 대나무에 걸어놓으면 저절로 밥이 된다고 함. ②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밥이 안 익었다고 의아해함. |

<표6: 베트남 자료 중 민담의 내용>

채록된 설화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베트남 설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료들은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스스로 대표적이라고 꼽은 설화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에 아이를 두고 온 여성들이 오랜만에 만난 베트남 아이에게 꼭 들려주고 전승시키는 이야기이자, 베트남 출신 엄마가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승력이 상당히 높은 설화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된 민담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즉, 부모가 자녀와 관계 맺기, 자녀가 부모와 관계 맺기, 형제간의 관계 맺기, 남녀 사이의 관계 맺기, 부부 사이의 관계 맺기 등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런 관점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 등으로 기초서사의 영역을 나누는 문학치료학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며, 여기에 최근 새로운 논의가 일고 있는 형제서사²¹⁾를 추가해 보았다.

21) 김수연, 「문학치료 기초서사로서 형제서사 설정 문제-인간관계 발달과정에 따른

수집된 자료에 형제나 자매의 문제를 다룬 민담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의 뽕과 감은 자매간, (2)~(6)까지는 형제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었다. 여기서 형제란 ‘유사자기’로 이해해 보겠다. 유사한 존재들이어서 이들이 합심한다면 큰 힘을 형성하기도 하나 이들은 부모의 한정된 애정과 재화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 이런 경쟁이 서로의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경쟁이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유사자기의 성취가 강렬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이다.

형제관계와 관련된 민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도 복잡하고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민담에서는 의붓자매(1), 의형제(7)로 제시되었으나, 민담의 나쁜 계모가 꼭 실제 계모가 아니라 친모의 환상적 변형이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복형제나 의형제도 실은 형제관계의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혹부리 여자도 형제서사의 범주에 넣었는데 이는 형제를 유사자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유사한 자기의 성취는 자기 가능성의 실현이기에 모방의 욕구가 더 강하게 일 수 있다.²²⁾

(10)부터 (19)까지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간직한 자녀서사가 많은데 그 중 양육자가 자녀를 버려도 자녀는 양육자를 살리거나(10), 보살피거나(11), 모시고 사는(12, 13) 등의 감싸기 태도를 보여주는 민담이 많다. (14)에는 과도하게 순종적이어서 웃음거리가 된 며느리가 등장한다. 한편, <무서운 괴물 마잔>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괴물 마잔을 조심하라는 엄마가 실은 마잔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괴물이 된 엄마를 피해 도망하는 기지를 발휘했다.(15)

관계적 사건과 심리적 자리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22) 이러한 맥락에서 <홍부놀부>처럼, 형제서사에 모방담이 많은 이유에 대해 통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6)은 잔인한 거짓말을 일삼는 꾀이를 더 이상 세상에 남겨두지 말아야겠다며 죽이려는 양육자가 등장한다. 꾀이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양부모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꾀이에게 거짓말로 왕이 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결말이 이채롭다. 한편, (17)과 (18)은 부모서사에 해당하는데 무시했던 자녀(사위)가 오히려 부모를 곤경에서 구하거나, 어린 아이가 권위자인 아버지, 왕도 어찌지 못하는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는데 그 배경에는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이 옳고 지혜로우면 따르는 이들이 존재했다.

(19)~(21)은 부자인 주인과 가난한 하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초서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따로 분류해 빈부, 고용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들 민담에서 부자는 인색하고 시샘이 많으며 성격이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자로 프영이 반복해 나온다.(19, 20) 앞서 살핀 <혹을 가진 두 여자>에서 혹을 붙여온 여자 역시 부잣집 딸로, 낮은 도깨비들을 경계하는 태도로 통명스럽게 대하며 오직 자기 목적만 이루려 했기에 혹을 하나 더 얻었다.

(22)~(23)은 남녀서사이다. 대나무 마디에 살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로 표상된, 숲 속에 살고 있는 외롭고 미천한 여성에 대한 신의를 지켜 부인으로 맞은 왕자는 숲과 들에서 더 많은 지혜를 터득했던 여성의 도움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22) (23)에서는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과 기지로 위기를 극복하는 땀의 활약이 주요 내용인데, 땀이 왕의 사위를 제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첫사랑을 선택하는 결말이 나온다.

(24)는 징그러운 두꺼비나 개구리, 혹은 해골바가지나 코코넛처럼 생긴 허영고 둥근 존재의 이면을 보고 혼인을 결정하는 여성이 등장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부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부부서사이다. 신랑의 형상이나 시련의 세부적 내용은 다르나 <구렁덩덩신선비>와 서사의 틀을 공유한다는 점은 설화의 보편성과 전승의 힘을 새삼 깨닫게 한다. (25)도 <미녀와 야수>와 닮았고, (26)

에는 견우직녀 애기와 결합된 내용이 있지만 나무꾼이 수탉으로 변한 이본의 결말까지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동일하다.

(27)~(32)도 부부서사에 해당한다. (27)에서는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한 쪽의 문제가 생겨,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할 금기를 어기게 되어 부부가 헤어지며, (28)에서는 예쁜 아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고난을 자초하였으나 결국 남편의 인내와 용기,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이 헤어진 두 부부를 결합하게 하였다. 한편, 믿었던 한쪽의 무책임한 배신은 (29)처럼 무서운 응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30)에는 뜻이 맞지 않는 아내에게 직접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지혜를 갖춘 남편이 등장한다. 게으르고 핑계가 많고 거짓말 잘 하는 것은 부부싸움의 일상적인 원인이 된다. (31), (32)는 이런 모습을 과장되고 희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를 내며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웃음으로 넘기는 데 있어 이런 소화(笑話)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베트남 민담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베트남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공유했던 관계의 윤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형제관계의 갈등과 해법을 다룬 민담의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형제[경쟁자] 사이의 갈등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부모를 보살피는 효(孝)가 중시되기는 하지만 위해(危害)를 가하는 부모에 저항·반격하거나 무력한 부모를 대신해 똑똑한 아이가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는 신의의 윤리가 강조되었다.

5. 결론

이 연구는 이주민설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설화 제보자의 수는 22명에 달한다.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들은 자국의

설화와 이야기문화의 전통으로 한국의 이야기문화를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확보된 베트남 설화에 대한 자료 중 많은 편수를 보유한 작품은 <의붓자매 땀과 껌>(8편), <쩌우까우 유래>(7편), <형제와 별나무>(7편), <아기장수>(6편) 등이다. 1편만이 제보된 경우도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의 특성을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신화 자료는 『영남척괴열전』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조신 신화는 여전히 베트남인의 자부심의 원천이자 사회통합의 상징적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전쟁을 끝내고 생업이 편안해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영웅과 농사영웅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다. 낙용군, 못할아버지와 같은 신화적 상상은 전설과 민담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전설 자료에는 베트남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고대와 중세에 이어 베트남 독립운동,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은 전설을 통해 아픈 패배의 기억을 간직하는 한편, 승리를 거둔 영웅의 행적을 칭송하였다. 전설이 교과서가 되고 전설 속 장소가 역사의 현장이 되었기에 베트남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외세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전설 자료에는 유래담도 많았는데, 이러한 유래담은 베트남인의 생활문화나 환경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내주었다.

다양한 민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까 고민한 끝에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윤리적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양식이라고 여기고, 사회적 관계[倫] 안에서 바람직한 관계 맺기의 방식[理]을 통찰하게 하는 문학치료 이론을 활용하였다. 삶의 문제가 다양한 맥락과 관계에서 발생하고 그 해법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듯이 베트남의 민담은 다양한 삶의 문제 상황을 서사적으로 전개시키면서 탐구하고 답변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하긴 힘들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처럼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해법이 있

을 수 있다는 유연한 삶이지 하나의 해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사한 설화라도 다른 해법을 제공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가게 하는 베트남 민담이 문학치료의 서사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문화적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낯선 민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자기서사의 진단에 유용하리라.²³⁾

문학치료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나 민족 단위의 경계를 넘어 스토리텔링의 원천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타문화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작업은 곧 문화적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며 타자와 더불어 새로운 이야기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나르시스를 사랑하는 에코(echo)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니 이주민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²⁴⁾

또한, 현재를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하며 다문화 문식성 및 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²⁵⁾ 다문화 문식성을 기르기 위해선 우선 타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알려해야 한다. 알게 되면 보이는

23) 김민수, 앞의 글, 183면.

24) 에코는 헤라 여신의 노여움으로, 남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단 한 마디도 먼저 말을 할 수 없도록 말의 능력을 빼앗겼다. 에코는 오직 남이 말을 먼저 할 경우에만 그의 마지막 말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에코는 단지 나르시스의 메아리, 나르시스의 되울림으로서 존재하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립적인 주체는 아니다.(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 239면 참조.) 한국의 이주민들은 어쩌면 에코의 운명을 지닌 존재가 아닐까 한다. 에코가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나르시스 같은 한국인은 에코를 참된 타자로 인정하지 않고 에코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스와 에코가 서로 주체적 대화를 통해 에코가 자립적인 타자이자 주체로서 설 수 있을 때, 에코와 같은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원이 되며, 나아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25)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것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타문화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문식성(literacy)의 능력도 신장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다문화 문식성의 기초인 타문화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서 설화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자의 경험은 곧 제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품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타자의 정체성의 확인 과정이자, 유사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나라면?’이라고 상상하면서 ‘나’의 해석적 정체성을 새삼 일깨우는 과정이었다. 또한, 승리하는 아기장수를 확신하고, 환검의 평화를 갈망하게 되는 ‘나’의 정체성 변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창 이야기가 오갈 때 왜 ‘이야기꽃’이 피었다고 하는지, 어떻게 찌우와 까우가 돌가루를 매개로 만나 전연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지²⁶⁾ 체득할 수 있었다.

결국 다문화 문식성의 핵심은 타문화에 개방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만을 사랑한 나르시스가 가진 자기동일성, 자기우월성을 극복하고, 혼란스러운 자기상실과, 융합을 위한 열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문화 문식성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感)하여 그 마음을 동(動)하게 할 만한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발굴되어야 하며, 타자의 목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중 베트남 자료 156편.
무경 편, 박희병 역,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2000.

26) 까우 열매를 먹으면 쓰고 신맛이 나는데 찌우와 같이 먹으면 그런 맛이 없어지며, 칼슘 성분의 회와 같이 씹으면 향기가 나고 맛이 있으며, 기를 내리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전웅옥택, 이지선 역, 앞의 글, 168면.)

<논저>

-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6,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
- 김수연, 「문학치료 기초서사로서 형제서사 설정 문제-인간관계 발달과정에 따른 관계적 사건과 심리적 자리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김영순,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박현숙,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이주민 대상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 _____,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 연구」,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 _____,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 이현정, 「베트남 설화 <토아йка인과 찌우뚜언>과 소설 <토아йка인과 찌우뚜언>의 비교」, 『베트남연구』 16, 한국베트남학회, 2018.

전혜경, 「한국 베트남 민담 비교연구-모기 기원담과 소의 기원담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8, 한국베트남학회, 2007.

——,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연구-한국의 『콩쥐팍쥐』와 베트남의 『땀감』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9, 한국베트남학회, 2009.

전응옥팀, 이지선 역, 「베트남 생활문화 속에서 식물의 역할」, 『베트남연구』, 2, 한국베트남학회, 2001.

최귀목, 『문학의 창으로 본 베트남』,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2010.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 역, 『호치민 평전』, 푸른숲, 2003.

논문투고일자: 2019.10.1. / 심사완료일자: 2019.10.16. / 게재확정일자: 2019.10.31.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 of Vietnamese Migrants' Oral Narrative Data

Hwang, Hye-jin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22 Vietnamese migrant oral narratives. Immigrants living in Korea will contribute to making Korea's story culture more colorful and rich with their own story culture traditions.

This study divides the narratives into myths, legends, and folk tales,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The myths still functions as a source of Vietnamese pride and a symbolic medium of social integration.

The legends had a lot to do with Vietnamese history from ancient times and the Middle Ages to the Vietnam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Vietnam War. The Vietnamese preserved the painful memories of defeat through legends and praised the victorious heroes' actions. On the other hand, the legends reveal the ways in which Vietnamese lifestyles and environments are understood from their perspective.

The Vietnamese folk tales convincingly suggests the Vietnamese ethics of the relationships. Many of the folk tales dealing with conflicts and solutions among siblings are characteristic, which can be seen as the complexity and severity of the conflict among sibling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filial piety is important, but there are cases where a smart child comes out on

behalf of a helpless parent or resists or confronts a harmful parent. Faithful ethics was emphasized in gender relationships and marital relationships.

Vietnamese narratives that are narrated by migrants have the utility of showing a different solution to universal life problems, or broadening the horizons of life and human understanding through stories that we do not have from a literary therapeutic point of view. In addition, multicultural narratives, including Vietnamese ones, are important in multicultural literacy education. As they can help overcome cultural narcissism and open the way for the production of new stories with others.

Key words: migrants' oral narrative, multicultural narrative, Vietnamese oral narrative, Vietnamese myths, Vietnamese legends, Vietnamese folk tales, multicultural education